

동아시아의 관제신앙과 신의(信義) 정신의 현대적 의미

여신*

목 차

1. 문제제기
2. 인간에서 '무재신(武財神)'으로의 변천사
3.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관제신앙
4. 한국의 관제신앙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제신앙 연구가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관제신앙의 역사와 현황을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관제신앙의 전래와 확산 방식, 관제의 신격과 신자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측면이 다소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일본과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관제신앙의 전래에 있어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인의 이주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된 반면, 한국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둘째, 관제신앙의 민간 확산에 있어 동남아와 일본에서는 아래서부터 수평적으로 전파된 반면,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산되었다. 셋째, 관제의 신격에 있어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제를 재신(財神)으로 숭배한 반면, 한국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른 신으로 숭배한다. 넷째, 관제의 신자에 있어서, 다른 국가는 주로 화교·화인이 신자인 반면, 한국의 관제 신자는 소수 현지인에 불과하며 관제의 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 대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과 초빙교수

키워드: 관제, 관우, 신앙, 숭배, 신의, 동아시아, 한국, 중국

1. 문제제기

‘관제신앙’은 중화권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신앙 중 하나다. 중국에서 크고 작은 관묘(關廟)¹⁾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북경시만 해도 116개에 달했다.²⁾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 그리고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의 중국인 거주지에서 관제상(關帝像)을 모시는 회사, 상점, 식당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세계 각지의 화상(華商)사회에서 관제가 ‘보호신(保護神)’과 ‘재신(財神)’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은 현지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신자들은 관제가 안전과 건강을 비호(庇護)하고 재물운을 부른다고 믿는다. 심지어 경찰과 범죄자 모두 관제를 모시는 아이러니컬한 풍습까지 존재한다. 이것은 뉴스 기사와 느와르 영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金晨에 의하면,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호주 등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총 4만 여 개의 관묘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제신앙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³⁾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중국인이 있는 곳에 관제신앙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⁴⁾로 불리는 한

1) 관우를 모신 묘를 가리켜 ‘관묘(關廟)’, ‘관왕묘(關王廟)’, ‘관공묘(關公廟)’, ‘관제묘(關帝廟)’ 등 여러가지 명칭이 있다. 이 논문에서 편의를 위해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모두 ‘관묘’라 칭한다.

2) 中國青年報, 「大地上處處有關羽的足跡」, 2022년 11월 8일 기사, 검색일: 2022년 11월 13일.

3) 金晨, 「關公信仰研究——以關公楹聯解讀爲例」,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3쪽.

4) 양필승과 이정희는 한국 화교 연구사를 총정리하여 한국화교가 몰라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연구서를 펴냈다. 그 연구서 제목은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이다. (양필승,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중국 사회학자 陸益龍은 한국 화교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의 화교가 주로 모여사는 집거 형태를 취하며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의 화교는 여러 가지 규제와 배척을 겪으면서 흩어져 사는 ‘감입식(嵌入式)’ 주거형

국에도 관제신앙이 존재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동묘(東廟)가 바로 중국의 관제를 모시는 사당이다. 더욱더 의외인 것은 이 관묘가 한국에 있는 화교(華僑)·화인(華人)⁵⁾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종로는 화교·화인이 살았던 지역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다. 동묘를 드나든 사람들 중에서도 화교·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묘의 건축 양식이나 동묘 안에 모셔진 관제상도 중국적이라기 보다는 한국적이다. 현판과 내부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이상 동묘가 관묘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을 정도다.

과연 관제신앙이 한국에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왜 한국의 관묘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한국에서 관제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으며,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정신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우선 관제신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관제신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대륙과 중국인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범위를 단일 국가나 지역에 한정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특정 국가와 중국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예컨대, 葛繼勇·施夢嘉는 일본의 관제신앙을⁶⁾ 阮光穎은 베트남의 관제신앙을⁷⁾ 付飛亮은 미국의 관제신

태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陸益龍, 『嵌入式適應模式——韓國華僑文化與生活方式的變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5) 화교(華僑)와 화인(華人)은 모두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교(華僑)는 해외로 이주했지만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중국인을 말한다. 화인(華人)은 해외에 정착하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화교·화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중국인 이민자’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면 ‘중국인 이민자’는 조선족까지 포함되어 전통적인 한족 중심의 화교·화인과 느낌이 다르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요에 따라 ‘화교·화인’과 ‘중국인 이민자’를 모두 사용하되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6) 葛繼勇·施夢嘉, 「關帝信仰的形成、東傳日本及其影響」, 『浙江大學學報』 第5期, 2004.

앙을 다루고 있다.⁸⁾ 한국 관제신앙에 관한 연구도 비슷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김탁⁹⁾, 王偉偉¹⁰⁾, 장장식¹¹⁾ 등이다.

둘째, 중국 대륙 외 지역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현지로 이주한 화교·화인과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童家洲는 일본¹²⁾, 譚志詞은 베트남¹³⁾ 梅紅은 말레이시아¹⁴⁾, 楚漢은 아프리카¹⁵⁾의 화인·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관제신앙 연구를 진행했다. 상기 연구들과 달리 한국 관제신앙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화교·화인과 관련지어 분석한 것은 단 한 편도 없다. 이것은 내가 동묘에 가서 직접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관묘 내지 관제신앙은 한국의 화교·화인과 별로 관련이 없거나 그 연결고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요컨대,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륙 외 지역에 대한 관제신앙 연구는 대부분 개별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연구 혹은 그 기원지인 중국과의 비교연구이다. 한국의 관제신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야를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어붙은 한중관계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관제신앙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은 관제신앙이 기원국인 중국에서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홍콩, 대만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화교·화인이 많이

7) 阮光穎, 「試論關公信仰文化在越南的傳播」, 『東南傳播』第4期, 2008.

8) 付飛亮, 「關公形象在美國的變異」, 『河南科技大學學報』第4期, 2012.

9)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서울: 선학사, 2004.

10) 王偉偉, 「韓國的關帝信仰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11)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제14호, 2004.

12) 童家洲, 「試論關帝信仰傳播日本及其演變」, 『海交史研究』第1期, 1993.

13) 譚志詞, 「越南河內歷史上的關公廟與華僑華人」, 『南洋問題研究』第1期, 2005; 譚志詞, 「越南會安"唐人街"與關公廟」, 『八桂僑刊』第5期, 2005.

14) 梅紅, 「馬來西亞華人社會的關公崇拜」, 『宗教學研究』第4期, 2015.

15) 楚漢, 「非洲華僑華人社會中的關帝廟」, 『八桂僑刊』第2期, 1996.

거주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관제신앙의 전래 과정과 현황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한국 관제신앙의 역사와 현황 및 기존연구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몇 가지 쟁점을 재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 관제신앙의 특징을 도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한국 관제신앙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고 관제신앙이 한중 관계 회복에 있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의미를 제시한다.

2. 인간에서 ‘무재신(武財神)’으로의 변천사

관우는 중국 한(漢)나라 환제(桓帝) 연희(延禧) 3년(A.D.160) 산서성(山西省) 해현(解縣)에서 태어나 헌제(獻帝) 건안(建安) 24년(A.D.219)년까지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로서의 관우에 대한 기록은 서진(西晉) 사학자 진수(陳壽)가 지은 『삼국지(三國志)』에서 찾을 수 있다. 관우는 젊은 시절에 유비(劉備)와 장비(張飛)를 만나 형제처럼 지냈고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며 평생 그 의(義)를 저버리지 않았다. 유비가 조조(曹操)에게 패했을 때, 관우는 조조에게 잡혀 귀순 권유와 함께 극진의 대우를 받았다. 이에 관우는 조조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그의 적인 원소(袁紹)의 부하 안량(顔良)을 베어 죽인 후, 결연히 유비에게 돌아갔다. 친구에 대한 의리와 군주에 대한 충성 외에도 관우는 조조도 탐내는 용맹한 장군으로 전해졌다. 『삼국지』 인물 중 관우는 손꼽히는 ‘충의지사(忠義之士)’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삼국지』가 쓰여진 당시까지만 해도 역사 인물로서의 관우는 신격화되지 않았다. 관우의 신격화는 그가 죽은 뒤에 유행하기 시작한 민간 전설과 그 후 조정(朝政)의 연이은 가봉(加封)에 의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1) 민간 전설 속의 악신(惡神)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관우에 관한 가장 최초의 전설은 남조(南朝) 광대(光大) 연간(A.D.567-568)의 일이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천태종의 지의(智顓) 스님이 당양현(當陽縣, 관우가 죽는 곳 근처)에서 옥천사(玉泉寺)를 짓는데, 관우 부자가 나타나 신력(神力)으로 도왔다. 이후 지의 스님은 옥천사 옆에 현열묘(顯烈廟)를 지어 관우의 신위를 모셨다. 宣朝慶에 따르면 이것이 민간 관우 신격화의 시작이다.¹⁶⁾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옥천사는 최초의 관묘(關廟)로, 진(陳)나라 황제 백종(伯宗)이 ‘관우가 현령하여 신이 되었다(關羽顯靈成神)’라 하여 짓게 된 것이라고 한다.¹⁷⁾

그런데 민간 전설 속의 관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무서운 모습을 가진 흉악한 신으로 전해졌다.¹⁸⁾ 당(唐)나라의 범터(範攄)가 민간 야사를 수집하여 편찬한 『운계우의(雲谿友議)』에는 관우에 관한 설화를 볼 수 있다.

玉泉祠，天下謂之四絕之境，或言此祠鬼興土木之功而樹。祠曰：‘三郎神’。三郎者，卽關三郎也。允敬者，則彷彿似睹之。緇俗居者，外戶不閉，財泉縱橫，莫敢盜者。廚中或先嘗食者，頃刻大掌痕出其面，歷旬愈明。侮慢者，則長蛇毒獸隨其後。所以懼神之靈，如履冰谷，非齋戒護淨，莫得居之。¹⁹⁾

옥천사(玉泉祠)는 사람들이 4대 절경 가운데 하나로 일컫는데, 혹자는 이 사당을 귀신이 토목 기술자를 발탁하여 세운 것이라 말하였다. 사당의 이름을 삼랑신(三郎神)이라 하였다. 삼랑이란 바로 관삼랑(關三郎)을 이

16) 宣朝慶, 「關公信仰與商人精神——一種基於宗教社會學的分析」, 『天津社會科學』第3期, 2006: 頁138.

17) 鄭士有, 『關公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1994; 金晨, 위의 글, 2017: 44쪽에서 재인용.

18) 李祖基, 「論《三國演義》與關帝信仰的形成」, 『廈門大學學報(哲社版)』第4期, 1998; 蔡少卿, 「中國民間信仰的特點與社會功能——以關帝、觀音和媽祖爲例」, 『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卷 第4期, 2004.

19) 唐, 範攄, 『雲谿友議』, 卷上.

른다. 경건하게 믿는 사람은 마치 그를 본 듯이 하였다. 승려와 속인이 사는 곳에서는 바깥 문을 잠그지 아니하였는데, 재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감히 훔치는 자가 없었다. 부엌에서 혹시 음식을 먼저 맛보면, 금방 그자의 얼굴에 따귀 맞은 커다란 자국이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그 자국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건방진 자는 사나운 짐승들이 긴 뱀처럼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얼음 위를 걷듯이 귀신의 신통함을 두려워하였다.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 자는 이곳에서 살 수 없었다.

앞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우(삼랑신, 관삼랑)가 오늘날 잘 알려진 충과 의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소한 작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도 무서운 벌을 주는 악신(惡神)이었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서운 존재였다.

송(宋)대 손광헌(孫光憲)의 소설 『북몽쇄언(北夢瑣言)』에도 관삼랑이 귀병(鬼兵)을 이끌고 입성했다는 소문이 돌아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소설에서도 관우의 이미지는 ‘충의지신’에 비해 ‘악신’ 내지 ‘악귀’에 더 가까웠다.

坊巷訛言關三郎鬼兵入城，家家恐悚，罹其患者令人寒熱戰栗，亦無大苦。弘農楊玘家自駱谷路入洋源，行及秦嶺，回望京師，乃曰：“此處應免關三郎相隨也。”語未終，一時股栗，斯又何哉？²⁰⁾

사람들 사이에서 관삼랑이 신이 보낸 병사를 이끌고 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란 헛소문이 돌아서 집마다 놀라 허둥거렸다. 화를 당하였다는 자가 사람을 오싹하게 하였지만, 무슨 큰 고생도 없었다. 홍농(弘農, 지금의 허난河南 링바오현靈寶縣 동북쪽 지명)의 양빈(楊玘)이 가족을 거느리고 뤼구(駱谷, 산시陝西의 서남쪽 지명)에서 양위안(洋源, 지금의 산시 전바현鎮巴縣 남쪽 지명, 지금은 폐지)으로 가는데, 친고개(秦嶺)에 이르러서 황제가 있는 도읍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관삼랑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아이쿠, 몸이 부들부들 떨리니 이는 또 어찌 된 일인가?

20) 宋, 孫光憲, 『北夢瑣言』, 卷十一.

이런 민간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나라 때 이미 백성들이 집에 관우상을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는 주장²¹⁾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비록 초기에는 악신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관제신앙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문인과 조정의 추대를 받은 충의(忠義)의 신

당(唐)까지 관우의 신격화가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졌고 용맹에 집중했지만, 송(宋)·원(元)에 이르러서는 점차 ‘충의(忠義)’로 변화했다. 일찍이 수·당 시대에 이미 문인들이 관우를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대개 장비와 동등하게 묘사하거나 용무(勇武)에만 초점을 맞췄다. 송에 이르러 문인들은 관우의 충의와 절개(節概), 그리고 한(漢)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관우가 점점 봉건사회의 정신적 모범으로 승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송·원에 발달했던 희곡, 소설 등 민간 대중문화에 의해, 관우는 점차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고 충성과 의리가 무쌍하며,神通력이 대단하고 나라와 민중을 구원하는’ 신령이 되었다.²²⁾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명대 나관중(羅貫中)의 소설 『삼국연의(三國演義)』이다. 이 소설에서 관우가 죽은 후 신이 되어 현령한 이야기가 무려 7번이나 등장했다. 이리하여 민간에서 유행하던 관우 신앙은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 들었다.

그런데 송대부터 관제신앙의 발전은 민간 숭배보다도 조정(朝廷)의 적극적인 가봉(加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송 휘종(徽宗)은 네 번의 가봉을 거쳐 ‘義勇武安王(의용무안왕)’의 시호를 내렸고²³⁾ 고종(高宗)

21) 金晨, 위의 글, 2017: 21쪽.

22) 송대와 원대에 관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희곡(戲曲)과 잡극(雜劇)이 대량으로 창작되었다.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개편된 작품으로 『關大王獨赴單刀會』, 『關雲長大破蚩尤』, 『關大王月下斬貂蟬』 등이 있다. 그외 역사를 기반으로 가공하거나 새로 창작한 이야기도 있는데, 『關大王大破蚩尤』, 『關大王三捉紅衣怪』 등이 그것이다.

은 그 앞에 ‘壯繆(장목)’을, 효종(孝宗)은 또 ‘英濟(영제)’를 추가하여 ‘壯繆英濟義勇武安王(장목영제의용무안왕)’이 되었다. 제사의 규모가 커지고 관묘의 수가 늘어나면서 관제신앙의 영향력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명(明)에 이르러 관제신앙이 더욱 발전하여 절정기에 도달했다. 1368년 농민 출신의 명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원을 멸망시키고 명을 건국했다. 건국 초기 황제의 가장 급선무는 새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전(祭典)이 갈수록 성대해졌다. 태조가 관우의 충의 형상이 민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관우를 추앙하면 백성과 신하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조(成祖)는 정난(靖難) 정변을 통해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고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했다. 그 역시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관우에 대한 민간 숭배를 이용했다. ‘관우가 백마를 타고 명군을 도와 전쟁을 이기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유포한 것이다.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이다.²⁴⁾ 이런 역사를 통해 이후 명 황실에서 왜 관우를 계속 숭배했는지, 또 왜 조선에까지 관묘 설립을 강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신종(神宗) 때 명나라 국세가 급격하게 쇠락한데다 설상가상으로 후금(後金)의 침략이 잦아져 내우외환에 처했다. 심해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종은 민중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충군(忠君) 사상 선전에 힘을 쏟았다. 이 시기 관우는 여러 번의 가봉을 거쳐 ‘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삼계복마대제 신위원진천존 관성제군)’에 봉해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신으로 만들어졌다. 관우가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23) 이에 대해 잘 알려진 전설이 있다. 송회종 때 해주 지역에서 물귀신이 나타나 백성을 괴롭혔는데 관우가 현령하여 조정에서 보낸 도사를 도와 물귀신을 잡았다. 이에 휘종은 관우를 숭령진군(崇寧眞君)으로 봉했다.

24) 많은 자료에서 “其中袍刀杖, 貌色髯影, 果然關公也, 獨所跨馬白(그 중에서 포를 입고 도검을 든 자가 있다. 그의 모습과 수염의 형태를 보니 역시 관우다. 그가 백마를 타고 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다. 다만 명나라 때 베이징 치엔먼(前門)에 세워진 관묘의 유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말에 이르러 관우는 이전의 무묘(武廟)의 주신 강태공(姜太公)을 대신하여 새로운 무신(武神)으로 자리 잡았다. 그 지위도 문성(文聖) 공자와 동등한 무성(武聖)이 되었고 심지어 ‘관부자(關夫子)’라는 미명까지 얻었다. 이것은 송·원 시기의 문학작품에서 관우를 유학 경전 『춘추』를 즐겨 읽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淸)도 명처럼 백성과 신하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관우를 충과 의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순치(順治) 9년(A.D.1652), 조정에서 관우를 ‘忠義神武關聖大帝(충의신무관성대제)’에 봉했고 제사의 예식을 높였다. 강희(康熙) 4년(A.D.1665), 관우를 공부자(孔夫子)와 동급인 ‘부자’로 높였고, 건륭(乾隆) 33년(A.D.1768) 관우가 여러 번 현령하여 도왔다는 이유로 순치가 내린 봉호에 ‘영우(靈佑)’를 추가했다. 또한 관우의 제사 예법과 관묘 규격을 제왕의 등급으로 재규정했다. 아편전쟁 이후 정치적 위기에 빠진 청왕조는 관우를 선전교화의 수단으로 동원하면서, 가봉(加封)이 계속해서 이어져 광서(光緒) 5년(A.D.1879)에 무려 26자의 긴 봉호인 ‘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보민정성수정익찬선덕관성대제)’가 내려졌다.

3) 상인의 단합과 발전을 보우하는 재신(財神)

상행하효(上行下效)는 중국 사회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이다. 명·청 시기 관우에 대한 국가의 끊임없는 추앙은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상 최고의 관우 숭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만 지배계층이 관우를 정권을 위해 헌신한 충신으로 선양했지만, 일반 민중들은 같은 방식으로 관우를 숭배한 것은 아니다. 민중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관우의 미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 간 것이다.

상인은 관우의 ‘신의(信義)’를 높이 평가해 그를 ‘재신(財神)’으로 모셨고, 일반인은 전설과 설화의 영향을 받아 관우를 재난을 없애는 ‘만능신(萬能神)’

으로 믿었다. 군인은 관우의 용무(勇武)을 높이 사 그를 ‘전쟁의 신(戰神)’으로 모셨고, 문인들은 관우가 생전에 『춘추(春秋)』를 즐겨 읽었다는 이유로 그를 ‘문형제군(文衡帝君)’, 즉 ‘시험의 신(考試神)’으로 믿었다. 또 많은 지방에서 관우를 재난을 막아주는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셨고, 민간 단체들은 관우를 결의(結義)의 증인과 결사 이익의 보호신으로 모셨다. 오늘날 관우는 이전에 다양한 성격들이 점차 하나로 수렴되어 도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재신(武財神)으로 자리매김하였다.²⁵⁾

그런데 애초에 왜 충의의 상징인 관우가 재물과 관련이 지어져 오늘날까지 내려왔을까? 이는 관우의 고향인 산서(山西)의 상인, 즉 진상(晉商)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산서는 예로부터 상업, 특히 염업(鹽業)이 발달한 도시였다. 금융업과 상업이 제도화되기 전에 상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규범은 성신(誠信)이었다.²⁶⁾ 상인 사회에서 ‘성(誠)’은 상사의 지시나 동료의 부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신(信)’은 거래처와 고객에 대한 신용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신’은 진상이 오랫동안 쇠락하지 않고 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산서 상인이 관우를 재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은 송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전에는 무재신 조공명(趙公明)과 문재신 비간(比干)도 모셨다고 한다. 閔愛萍에 따르면, 진상의 무재신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우는 상행위의 도덕적 모범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자신의 신용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기호이기도 하다.²⁷⁾ 일례로, 산서 요성(聊城) 남쪽에 위치한 산섬회관(山陝會館)에는 다음과 같은 대련(楹聯)이 걸려 있다.

25) 재신(財神)은 문재신(文財神)과 무재신(武財神)으로 나뉘어지는데, 문재신은 비간(比干), 범려(范蠡), 이귀조(李詭祖)이고 무재신은 관우(關羽), 시영(柴榮), 조공명(趙公明)이다.

26) 董才生은 진상(晉商)의 성공 요인을 ①내재적 요인인 전통적 도덕 규범과 ②외내적 요인인 엄격한 관리 시스템으로 꼽았고, 외재적 요인은 내재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내재적 요인이란 성신(誠信)을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 속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다. (董才生, 「社會信任的基礎：一種制度的解釋」,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74-76쪽.)

27) 閔愛萍, 「地方文化中的關帝信仰——山西解州關帝廟廟會及關帝信仰調查研究」, 『山西大學學報』第37卷第2期, 2010: 71쪽.

偉烈壯古今 浩氣丹心 漢代一時眞君子
至誠參天地 英文雄武 晉國千秋大丈夫

위열장고금 호기단심 한대일시진군자
지성참천지 영문웅무 진국천추대장부

이 대련의 후반부는 관우의 극진한 성(誠)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켰기에 ‘진정한 군자’와 ‘영원한 대장부’로 높이 평가한다. 산섬회관은 산서와 섬서 상인들이 친목을 다지고 신령을 모시는 곳이자, 중국과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진상은 이런 회관을 근거지로 삼아 관제의 신의를 선양하며 공동체를 단결시킨다. 이러한 진상의 관제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閻愛萍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90년대 이후 해주 지역의 상점에서 거의 예외없이 관제상을 모시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보여준다.²⁸⁾

이처럼 산서 상인의 관우숭배는 상행위에서 도덕 규범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고, 이런 규범을 종교의 힘을 빌려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金晨에 의하면, 관우를 숭배하는 것은 공통의 신앙을 통해 동향(同鄉)집단의 응집력을 높여 다른 지역 상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관우의 올바른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훗날 산서 상인의 영향력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관제신앙도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²⁹⁾ 뿐만 아니라 송대부터 조정에서 관제를 대대적으로 추앙한 사실을 고려하면, 상인이 관제를 모시는 것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배 집단의 주류 이데올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의 인정을 받아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³⁰⁾

28) 閻愛萍, 위의 글, 2010: 71쪽.

29) 金晨, 위의 글, 2017: 61-62쪽.

30) 閻愛萍, 「關公信仰“在地化”研究——以關帝故里山西解州爲中心考察」, 『青海社會科學』第3期, 2011: 209쪽.

3.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관제신앙

홍콩과 대만의 관제신앙 형성 과정은 중국 대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관제신앙의 현황에는 차이가 있다.

홍콩 사회의 관제신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홍콩에 가본 적 없어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관제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특히 경찰과 조직폭력배가 모두 관제를 모시는 특이한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관제상을 모시는 것은 193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후 사건을 해결하거나 승진이 있으면 관제에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³¹⁾ 홍콩에는 관제만을 모시는 관제묘가 많지 않지만 가정집이나 식당, 상가에서 관제상을 모시는 풍습은 보편적이다. 홍콩 최초의 관묘는 문무묘(文武廟)인데, 매년 음력 5월 13일³²⁾이 되면 관제를 위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낸다. 사람들은 향을 태우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 사업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재운(財運)을 빌고, 정부 공무원은 승진을 빈다. 일반 시민들은 건강과 행운을 빌고, 여행을 앞둔 사람은 안전과 순조로움을 빈다.

대만의 관제신앙이 홍콩보다 더 광범위하다. 대만에서 관제는 충의(忠義)의 화신으로서 보호신(保護神)과 재신(財神)으로 숭배되어 왔고, 크고 작은 관묘들이 대만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대만의 관묘 수는 통계마다 차이가 큰데, 예를 들면 鄭土有(1994)의 저서 『關公信仰』는 대만의 관묘 수를 46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 『金門日報』는 350개 내외³³⁾, 『香港商報』는 무려 2000여 개의 관제 궁묘사당이 있다고 집계했다.³⁴⁾ 이런 차이는 아마 관묘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본고를 작성하는

31) hket, 「大館《關公駕到》細數差館拜關公源起」, <https://topick.hket.com>, 검색일: 2022년 10월 09일.

32) 음력 5월 13일은 '관제가 칼을 가는 날(關公磨刀節)'이라는 전설이 있다.

33) 金門日報, 「最受台灣歡迎的神」, 2009년 9월 14일 기사, 검색일: 2022년 10월 09일.

34) 香港商報網, 「台灣的關帝信仰探討」, <http://www.hkcd.com/hkcdweb>, 검색일: 2021년 11월 19일.

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 전에도 까우슝(高雄) 관제묘가 앰블런스 30대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³⁵⁾ 대만에서 관제신앙의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지만, 과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관제신앙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平兆龍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에서 관제를 모시는 종교 건축물[묘(廟), 정자(亭), 사당(祠), 사찰(寺)] 등이 총 40여 개에 달한다. 그중 가장 오래된 ‘호이안 관제묘(會安關帝廟)’는 1650년 경에 지어졌다. 베트남 각지에 산재한 관제묘의 건축 시기는 대부분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은 과거부터 관우숭배 풍습이 성행했는데, 화교·화인이 이런 풍습을 발전시킨 주력이었다. 관제신앙이 베트남에 처음 전해진 것이 중국인의 이주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베트남에 있는 관묘 가운데 대부분이 화교·화인 또는 화상(華商)에 의해 지어졌고, 주로 호치민시, 호이안, 하노이 등 중국인 집거지에 분포되어 있음은 확실하다. 17~18세기까지만 해도 관우숭배가 주로 화교·화인 사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베트남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19~20세기에 이르러 화교·화인의 적극적인 전파, 지배계층의 지지, 그리고 중·베 문화의 공통성 덕에 관우숭배가 점차 베트남 불교와 융합하고 공존하게 되었다.³⁶⁾

말레이시아의 관제신앙 역시 중국인 이민자에 의해 전파되었다. 중국인이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주한 것은 포르투갈과 영국 치하의 식민지 시기였다. 당시의 화공(華工, 중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주석광 채굴을 하거나 농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등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고향을 등지고 떠난 이민자는 가족과 떨어져 신변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에게 마음을 맡겼다. 梅紅의 실증조사에 따르면, 당시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날 때 관제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항해길과 타지 생활 내내 평안을 빌었다. 처음에는 관제상을 자기 집에 봉안하다가, 화교·화인 사회가 점차 형성되고 절과 향회(鄉會), 학교가 지어지면서, 모두들 기꺼이 집안의 신상을 꺼내어 공유했다.³⁷⁾ 말레이시아 관제

35) yahoo新聞, 「高雄關帝廟15年不間斷, 今再捐第30輛救護車」, <https://tw.news.yahoo.com/>, 검색일: 2022년 10월 09일.

36) 平兆龍, 「越南華僑華人文化地理研究(1405—1945)」,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69쪽.

는 재신(財神), 평안신(平安神), 수호신(守護神) 등의 ‘다중 신격’을 지니고 있다. 화교·화인의 이주 초기에는 영국 식민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중국 인끼리 고도로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관묘는 화교·화인의 사회복지와 행정관리의 역할을 도맡았다. 초기 이민자들은 의료 문제로 종종 관묘에 도움을 청했는데, 관묘의 이런 의료적인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신산담배관성단(新山淡杯關聖壇)’에서는 2004년 신장투석센터에 5000 말레이시아 달러를 기부했고, 청룡궁(靑龍宮)은 두 대의 투석기를 기부하였다. 현재 관묘는 여전히 화교·화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³⁸⁾

필리핀 화교는 대부분 민남(閩南) 지역 출신이다. 陳衍德에 따르면 초기에 필리핀으로 건너간 중국인에게 관제는 매우 중요한 보호신 중의 하나다. 필리핀에 도착한 이민자는 주변의 위험한 환경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제를 통해 힘을 얻고 마음을 의지했던 것이다. 필리핀에서 자리 잡은 후 이들은 관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관묘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³⁹⁾ 사찰뿐만 아니라, 관제를 맹주(盟主)로 모시는 화인단체(華人社團)도 많다. 특히 결의(結義) 성격의 단체들은 관제를 숭배했다. 이런 단체는 신문에 보도된 것만 해도 40~50개에 달하고, 단체명에 ‘의(義)’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충의(忠義), 인의(仁義), 돈의(敦義), 상의(尙義), 숭의(崇義), 동의(同義), 결의(結義), 의맹(義盟), 의효(義孝)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상인 모임으로, 축제를 열 때면 제물을 올려 사업번창과 재운형통을 기원한다. 초기의 화교·화인 상회(商會)도 대부분 관제를 맹주로 삼았다. 여기에는 ‘신의(信義)’를 조직의 원칙으로 삼으려는 의미와 함께, 비호를 받고 재운형통을 바라는 공리주의적 목적도 있다. 오늘날 관제는 상인의 보호신(保護神)과 재신(財神)으로 정착했다. 청포를 입고 붉은 얼굴을 하는 관제상이 중국인의 주택, 식당, 상점, 사무실 등에 모셔져 있다. 2~3세 화교·화인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관제에 대한 숭배는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이다.⁴⁰⁾

37) 梅紅, 위의 글, 2015: 261쪽.

38) 梅紅, 위의 글, 2015: 265-266쪽.

39) 陳衍德, 「試析菲律賓華人宗教信仰的經濟動機」, 『南洋問題研究』第1期, 1994: 36쪽.

관제신앙이 언제 일본으로 전해졌는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다만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관제신앙은 대략 명(明)말 청(淸)초 때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인에 의해 전래되었다. 童家洲에 따르면 당시 일본으로 이주한 중국인은 상인을 비롯하여 명나라의 사대부와 문인 등이 있었다. 전자는 대부분 밀수하다가 적발되어 일본으로 망명한 상인이고, 후자는 청나라에 귀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일본으로 이주한 후 그들은 모국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정신적 방황과 번뇌에 시달린 끝에, 정신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공통된 필요에 의해 관제를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⁴¹⁾ 이들 초기 중에는 특히 객가인(客家人)⁴²⁾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趙國權에 따르면, 객가인이 일본으로 대거 이주한 것은 명·청 시대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상인이다. 민국(民國) 초년(1912년 경) 요코하마만 해도 6,000여명의 객가인이 정착했다. 관제숭배도 객가인의 이주에 따라 일본 각지에 전파된 것이다. 예컨대, 요코하마 차이나타운(中華街)에 위치한 관묘는 초기에 이주한 객가인이 1876년에 출자해서 지은 것이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출자해서 수리와 재건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관제숭배도 점차 재일 객가인이 상업행회(商業行會)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 의존하는 정신적 유대가 되었다. 1973년판 『요코하마시사(橫濱市史)』에 “이곳 화상(華商)은 관제를 봉사(奉祀)하여 보호를 받고 탈이 없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하였다. 상인과 객가인 이외에도 승려와 외교사절이 관제신앙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³⁾ 비록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관제문화 전래는 동남아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관제가 해외 이주 중국인으로부터 특별히 존경받는 원인은 의(義)에 있다. 화교·화인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물며 뚝뚝 뭉쳐 서로 도와야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의’를 핵심으로 하는 관우 정신, 즉 어려운 사람을

40) 陳衍德, 위의 글, 1994: 37쪽.

41) 童家洲, 위의 글, 1993: 25쪽.

42) 객가인(客家人)은 객가(客家) 지방 방언을 모어로 사용하는 한족의 한 계열이다. 중국 남방 광둥, 복건, 강서, 대만 등지역의 원주민 중의 하나다.

43) 趙國權, 「日本關帝文化的嬗變及其價值取向」, 『日本研究』 第2期, 2011: 76-77쪽.

구제하고 돈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신용을 지키고 은혜를 보답하는 미덕은 화교·화인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다. 이에 따라 ‘의’의 상징인 관우도 자연스럽게 추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 해외에 정착한 화교·화인 가운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화상(華商) 사이에서 협력도 있지만 이해충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의리와 신의(信義)를 상징하는 관우는 이익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화해시키고 정상적인 상업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더욱이 신용을 지키는 것은 화교·화인의 상업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신용을 지키지 않아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과 도덕 규범으로 상인들을 구속하는 것 외에 종교적인 신앙도 중요한 보충으로 사용된 것이다. 여러 신(神) 가운데 관제가 이런 역할을 가장 잘 맡을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관제신앙이 해외의 화교·화인사회에 계승되고 고양될 수 있는 것이다.

4. 한국의 관제신앙

한국의 관제신앙 전래는 동남아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 관제신앙은 역대 봉건왕조의 적극적인 선양에 의해 점차적으로 민간에 확산되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전파하고, 아래서 위를 따라하는 형식이다. 반면에 동남아와 일본의 관제신앙은 일종의 ‘풀뿌리 신앙’이다. 즉 중국인의 해외이주에 따라 현지에 유입되고 화교·화인 사회에 의해 천천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앞의 두 경우와 달리, 한국의 관제신앙은 외세(명)의 권유 또는 압박에 의해,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서서히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의 관제신앙은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명군에 의해 한국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명군 사이에서 이미 뿌리 깊은 관제신앙이 있었는데, 왜적과 싸울 때 항상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에,

선조 25년(1957) 정유재란을 맞아 다시 한 번 관우의 음조(陰助)를 기원하기 위해 최초의 관왕묘인 남묘(南廟) 설립한 것이다.⁴⁴⁾ 김탁에 의하면, 그 전까지 한국에는 관우에 대한 숭배와 믿음이 전혀 없었다.⁴⁵⁾ 이에 대한 근거로 김탁은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을 들고 있다.⁴⁶⁾ 선조가 홍문관에 전교를 내려 관왕묘에 합당한 예제를 찾아보게 했으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제사는 없었고, 엇비슷하여 모방할 만한 규칙을 구하고자 했으나 역시 상고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한 기록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 관제신앙의 전래는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별된다. 한국의 관제신앙은 중국처럼 자생적인 것도 아니고, 동남아나 일본처럼 이주민에 의해 자연스레 유입된 것도 아닌, 외세에 의해 강제로 주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제신앙은 조선이 정치적, 현실적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난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조차 관묘의 건설과 관제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⁴⁷⁾ 선조 32년(1955) 명나라 장수 양경리(楊經理)가 관묘에서 불교의례 ‘수륙재(水陸齋)’를 지내려 했지만, 사신은 “운장(雲長)은 부처가 아닌데, 중국인이 관왕묘에 도량(道場)을 설치하니 그 황탄하고 망령됨이 이와 같다”고 했다.⁴⁸⁾ 그리고 두 번째 관묘인 동묘 건설에 대해서 민중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명군은 남묘의 규모가 작아 관묘를 하나 더 짓기를 원했는데, 이들의 요구에 따라 동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은 전후 국력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외세의 압박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조정과 민간의 지지를

44) 김필래, 「관우설화 연구」, 『한성어문학』 제17권, 1998: 64쪽.

45) 김탁, 위의 책, 2004: 49쪽.

46) 최부(崔溥, 1454~1504)가 성종 19년(1488년)에 중국에 표류하여 6개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표해록(漂海錄)』에 중국 관왕묘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국역 연행록선집』 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6.)

47) 김필래, 위의 글, 2006: 65-66쪽.

48) 『선조실록』 117 권, 32년 9월 17일 계해일조. 政院啓曰: “經理都監郎廳來言: ‘經理明日關王廟, 欲爲水陸齋, 芙蓉香六柄入之’ 云。 敢啓.” 傳曰: “送之.” 史臣曰: “雲長非佛也, 而華人設道場於關廟, 其荒誕謬妄, 如是夫!”

받기 힘든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선조실록』에서 “관왕묘의 역사는 매우 허탄(虛誕)한 일로 한번 짓는 것도 그릇된 일인데 금지하지 못하였고 이제 또 동교(東郊)에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니, 전쟁으로 인해 살아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⁹⁾

선조 이후 광해군에서 인조 초기까지 관묘는 줄곧 명나라에 대한 외교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⁵⁰⁾ 조선 후기 숙종 때에 이르러서 관묘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숙종은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겪고 나서 충의(忠義)의 상징인 관묘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숙종은 17년(1691) 2월 처음으로 직접 동묘에 방문했는데, 이는 선조 이후 두 번째로 왕이 직접 관묘를 방문한 것이다. 관묘를 군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선전하는 장소로 삼으려는 노력은 이후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까지 이어졌다. 왕들의 이러한 행동은 한편으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우의 ‘충의(忠義)’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관묘 제사를 통해 청(淸)이 아닌 명(明)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관제신앙이 조선에 도입된 초기에는 타의적으로 강요된 신앙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으나, 이후 통치자가 관묘 의례를 신화와 민중의 충성심을 고취하고 나라의 정통성을 지키는 상징으로 활용하하면서 차츰 민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관제신앙이 조선 민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유입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영향이 컸다는 주장이 있다. 김탁에 의하면, 『삼국지연의』가 조선으로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선조 재위 기간인 1568년~1608년 사이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문인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수필집 『西浦漫筆』(1971)에는 “지금 이른바 『삼국지연의』라는 것이 원(元)인 나관중(羅貫中)에게서 나온 것으로, 임진 이후에 우리나라에 성행하여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같이 암송할 정도다”라 하였다.⁵¹⁾

49) 『선조실록』 114 권, 선조 32년 6월 22일. 史臣曰: “關廟之役, 大是虛誕, 一之已非, 而不能禁, 又於東郊, 大興土役, 予遺之民, 安得以爲生乎?!”

50) 김탁, 위의 책, 2004: 57~60쪽.

具銀我也 관우가 민간에서 제악초복(除惡招福)의 신이 된 것은 당시 전쟁 중에 유행하던 관제현령(關帝顯靈) 전설과 『삼국지연의』, 『임진록』 등 소설의 유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⁵²⁾ 이런 주장에 반해, 孫衛國, 羅玲 등은 『삼국지연의』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 문학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지만, 조선의 관제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⁵³⁾ 어떤 경우가 옳든 조선의 관제신앙은 관우가 신격화되면서 민간에 빠르게 유포된 것만은 확실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관묘가 지어진 초창기에 민중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속중 때는 관묘 참배를 두 번이나 금지하였다.⁵⁴⁾ 영조 때도 관묘에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 차례 금지령이 있었다.⁵⁵⁾ 이로 보아, 조선후기 관제는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기복(祈福)의 대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관제의 신격(神格)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의 관제가 중국과 달리 특정 기능을 가진 신보다 ‘만능신(萬能神)’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⁵⁶⁾ 관제가 중국에서 무신(武神)과 재신(財神)을 비롯한 만능신이지만,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재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한국 신종교에서는 수련할 때 샅된 기운으로부터 수련자를 보호하는 신격으로 더욱 신앙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⁵⁷⁾ 한중 차이를 강조하는 주장과 달리, 한국의 관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신(財神)’의 속성이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⁵⁸⁾ 이의 관제신앙이

51) 김탁, 위의 책, 2004: 70쪽.

52) 具銀我, 「首爾의關帝廟和關帝信仰」, 『宗敎學研究』 第3期, 2013: 270쪽.

53) 孫衛國, 「朝鮮王朝關王廟創建本末與關王崇拜之演變」, 『東疆學刊』 第2期, 2012: 1쪽; 羅玲, 「關公崇拜從中國到韓國的傳播與演變」, 『廣東第二師範學院學報』 第2期, 2015: 105쪽.

54) 조선왕조실록 39 책 242 쪽, 40 책 31 쪽, 김윤경,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발현과 전개: 조선후기 관제신앙, 설음즐교, 무상단」, 『한국철학논집』 제 35 집, 2012 에서 재인용.

55) 조선왕조실록 44 책 88 쪽, 김윤경, 위의 글에서 재인용.

56) 王偉偉, 위의 글, 2014.

57) 김탁, 위의 책, 2006.

무속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⁵⁹⁾

이처럼 한국에서 관제의 신격에 대한 의견들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현대 한국의 관제는 관성교, 증산교 등 신흥종교에서 주로 최상급 신을 보좌하는 ‘보호신(保護神)’으로 자리잡고 있고, 무속에서는 재신(財神)의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기복(祈福)의 기능도 가진 ‘만능신(萬能神)’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와 具銀我의 주장처럼, 실제로 한국에서 관제신앙의 영향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일반 한국인은 동묘에서 무슨 신이 봉안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즉 관제신앙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영향력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관제신앙은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 그 원인을 관제신앙의 전래와 변천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과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관제신앙은 중국인의 이주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화상(華商)을 비롯한 화교·화인사회에 의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바로 화교·화인 사회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관제신앙이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점점 다른 집단의 동의를 얻어 현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관제신앙이 외세에 의해 강제로 수입되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이타운이 없는 나라’라는 별명처럼, 한국의 화교·화인은 6.25전쟁과

58) 장장식은 현재 신앙집단에 의해 주재되는 방산동 성제묘(聖帝廟)는 중국의 경우처럼 관우신앙이 지닌 재복신(財福神) 관념과 일치하고, 보신각(普信閣) 근처에 있던 종묘 역시 종로 육의전(六矣廛) 상인에 의해 건립되고 신봉되던 관우신앙처임을 주장한다. (장장식, 위의 글, 2004: 246쪽.)

59) 具銀我是 현재 동묘는 무당이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평일에도 신자를 이끌고 와서 굿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굿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로 일대에서 장사는 하는 상인들이고,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자녀 입학에 관한 개인적 소원을 빈다. (具銀我, 위의 글, 2013: 272쪽.); 유상규도 무속이 한국 관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대 관제 종교화의 근원이고, 무속의 관성제군이 무신(武神)에 재신(財神)을 더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유상규, 「韓中 關帝信仰의 史的 展開와 傳承 樣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4-45쪽.)

박정희 정권의 탄압정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화교·화인도 다른 나라처럼 집거형태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관제신앙은 다른 나라처럼 화교·화인의 강력한 지지력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본토·외래 신앙들과 경쟁하며 서로 다른 성격의 집단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형되어 왔다. 관제신앙의 영향력은 어쩌면 그 지역사회에서 화교·화인, 특히 화상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5. 나가며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제신앙 연구가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한국 관제신앙의 역사와 현황을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범위 안에서 다시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찾아낸 한국 관제신앙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관제신앙의 전래에 있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주로 화교·화인의 이주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된 반면, 한국의 관제신앙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명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그래서 관제신앙 유입 초기에는 환영받지 못했다.

둘째, 관제신앙의 민간 확산에 있어서, 중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수직적인 경로를 통해 확산되었다면, 동남아와 일본에서는 점(點)에서 면(面)으로의 수평적인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다. 비록 모든 나라에서 관제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현지화되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중국 본토와 매우 비슷하다. 즉 의(義)의 상징과 재신(財神)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한국 관제신앙의 민간 확산은 그 기원지인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즉 통치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제를 활용했고, 통치자의 적극적인 추앙에다가 다양한 현령 전설과 문학작품의 영향이 더해져서, 서서히 민간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셋째, 관제의 신격(神格)에 있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 본토와 마

찬가지로 관제를 재신(財神)으로 숭배한다. 관제의 주요 신봉자인 화교·화인과 화상들은 관제의 신의(信義) 정신을 중요시 여기며, 이것을 상업행위와 일상생활의 도덕적 규범으로 삼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관제는 여러 신흥종교에서 ‘보호신(保護神)’으로 자리잡고 있고, 무속에서는 재신(財神)의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기복(祈福)의 기능도 가진 ‘만능신(萬能神)’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관제의 신자에 있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주로 화교·화인, 특히 화상(華商)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 관제의 주요 신봉자는 현지인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이나 한국 거주 화교·화인의 신앙생활과 정신생활에서 관제신앙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다.

요컨대, 오늘날 한국의 관제신앙은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재신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이다. 혹자 관우라는 충의지사를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신으로 개조한 것은 지나치게功利주의적이고 금전 지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관제를 재신으로 모시는 것은 신의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의 형식을 통해 어느 사회에서나 꼭 필요한 신의(信義)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장 부족한 상업사회에 도입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관제는, 정서적인 면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고, 현실적인 면에서 성신(誠信)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또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구성원 간의 결집력을 향상시킨다.

물론 관우라는 인물의 신과 의는 어디까지나 친구와 군주에 대한 것이고, 매우 좁은 의미의 미덕이다. 이런 협의적인 신의는 자칫 잘못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신의 동향(同鄉), 동업(同業), 동료(同僚)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이방인, 타자, 경쟁자에 대한 불신(不信)과 불의(不義)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진상(晉商)이 관제의 성신(誠信)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이를 통해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런 덕목은 어디까지나 그 집단만을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외

화교·화인이 관제의 신의를 강조하며 상부상조를 통해 타지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만약 이런 신의를 지역사회의 타 집단, 타 민족에 똑같이 적용하지 못한다면, 화교·화인사회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또한 백해무익의 존재가 된다.

사드 이후 한중 간 끊이지 않은 갈등은 자국 내에서 지켜지는 신의를 타국에 적용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고, 정치체제와 생활양식이 달라도 개인과 사회의 밑바탕에 거대한 유교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만약에 신의를 비롯한 관제의 유교 정신을 거시적·미시적인 국제관계에 실천할 수만 있다면, 갈등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협의적인 신의가 아니라 광의(廣義)적인 것을 말한다. 광의적인 신의는 곧 박애(博愛)인데, 이것은 법적, 제도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고 자신 혹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발성과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지극히 고상한 도덕적 수양이 요구되는 고귀한 미덕이다. 관제신앙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 광의의 신의를 가질 수 있다면, 자신과 이해충돌이 있는 대상,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대상, 심지어 자신에 적대적인 대상에게도 신의를 지킨다면, 한중관계는 모든 층위에서 다시 회복되리라 믿는다.

參考文獻

1. 저서

- 陸益龍, 『嵌入式適應模式——韓國華僑文化與生活方式的變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鄭士有, 『關公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1994
-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서울: 선학사, 2004.
- 양필승,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4.

2. 논문

- 葛繼勇·施夢嘉, 「關帝信仰的形成、東傳日本及其影響」, 『浙江大學學報』 第5期, 2004.
- 具銀我, 「首爾的關帝廟和關帝信仰」, 『宗教學研究』 第3期, 2013,
- 金晨, 「關公信仰研究——以關公楹聯解讀為例」,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譚志詞, 「越南河內歷史上的關公廟與華僑華人」, 『南洋問題研究』 第1期, 2005.
- 譚志詞, 「越南會安"唐人街"與關公廟」, 『八桂僑刊』 第5期, 2005.
- 童家洲, 「試論關帝信仰傳播日本及其演變」, 『海交史研究』 第1期, 1993.
- 董才生, 「社會信任的基礎: 一種制度的解釋」,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羅玲, 「關公崇拜從中國到韓國的傳播與演變」, 『廣東第二師範學院學報』 第2期, 2015.
- 李祖基, 「論《三國演義》與關帝信仰的形成」, 『廈門大學學報(哲社版)』 第4期, 1998.
- 梅紅, 「馬來西亞華人社會的關公崇拜」, 『宗教學研究』 第4期, 2015.
- 付飛亮, 「關公形象在美國的變異」 『河南科技大學學報』 第4期, 2012.
- 宣朝慶, 「關公信仰與商人精神——一種基於宗教社會學的分析」, 『天津社會科學』 第3期, 2006.
- 孫衛國, 「朝鮮王朝關王廟創建本末與關王崇拜之演變」, 『東疆學刊』 第2期, 2012.

- 閔愛萍, 「關公信仰“在地化”研究——以關帝故里山西解州為中心考察」, 『青海社會科學』第3期, 2011.
- 閔愛萍, 「地方文化中的關帝信仰——山西解州關帝廟庙会及關帝信仰調查研究」, 『山西大學學報』第37卷第2期, 2010.
- 阮光穎, 「試論關公信仰文化在越南的傳播」, 『東南傳播』第4期, 2008.
- 王偉偉, 「韓國的關帝信仰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 趙國權, 「日本關帝文化的嬗變及其價值取向」, 『日本研究』第2期, 2011.
- 陳衍德, 「試析菲律賓華人宗教信仰的經濟動機」, 『南洋問題研究』第1期, 1994.
- 蔡少卿, 「中國民間信仰的特點與社會功能——以關帝、觀音和媽祖為例」, 『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卷第4期, 2004.
- 楚漢, 「非洲華僑華人社會中的關帝廟」, 『八桂僑刊』第2期, 1996.
- 平兆龍, 「越南華僑華人文化地理研究(1405—1945)」,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김윤경,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발현과 전개: 조선후기 관제신앙, 설음즐교, 무상단」, 『한국철학논집』제35집, 2012.
- 김필래, 「관우설화 연구」, 『한성어문학』제17권, 1998.
- 유상규, 「韓中 關帝信仰의 史的 展開와 傳承 樣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제14호, 2004.

3. 기타 자료

『국역 연행록선집』

『조선왕조실록』

唐, 範攄, 『雲谿友議』

宋, 孫光憲, 『北夢瑣言』

金門日報

香港商報網

中國青年報

yahoo新聞

hket

Abstract

Gwanje Belief in East Asia and the Modern Meaning of the Faithful(信義) spiritin

Lu Chen

Existing research on Gwanje(Guan di) belief is largely confined to the study of one reg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current article reviews its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exceeding the scope of East Asia. It is found that while there are some similar aspect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Gwanje belief's tradition, propagation, its divinity and believers, the difference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Japan can be easily witnessed. Primarily, Gwanje belief was naturally introduced to many East Asian countries, accompanying the Chinese immigration. On the contrary, it was imposed in Korea by improper external influence. Secondly, Gwanje belief was chiefly propagated among those at the bottom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Japan, whereas it was imbued and spread in a top-down way in both Korea and China. Thirdly, similar to China, Gwanje has been respected as the god of wealth in many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existence of various religions, it does not serve the same role in Korean society. Last but not least, whilst Gwaje's believers are comprised of overseas Chinese and ethnic Chinese in many countries, they are mainly constituted by the locals in Korea, usually with little influence.

Key words : Gwanje, Guan Di, Guan Yu, Belief, Worship, Faithful(信義), East Asia, Korea, China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